

월요광장

카산드라의 진실과 세 개의 문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어느 시대에 사람 사이의 일은 진실이 문제다. 진실이 '진실'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레 당연한 일도 없지만, 사실 이 일만큼 어렵고 힘든 일도 드물다. 진실이란 단순히 사실들의 확인이 아니고 사실 나마에 있는 힘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이런 이유에서 진실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 자신의 현주소다. 이 진실의 힘은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렇기에 진실의 무게와 의미가 무거울수록 불신과 왜곡의 힘 또한 강력하다. 이렇게 아무도 믿지 않는 진실이 얼마나 큰 고통과 불행운을 가져오는가를 신화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바로 그리스 신화의 카산드라다.

카산드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공주다. 카산드라의 아버지는 현명한 통치자로 존경받는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이며 남동생이 파리스다. 이 파리스가 그리스의 왕비 헬레네를 납치해서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카산드라는 뛰어난 총명함과 아름다움으로

신들 가운데서 최고의 신이라는 아폴론의 구애를 받는다. 하지만 아폴론의 사랑보다는 신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던 카산드라는 아폴론의 선물만 받고 정작 그의 사랑을 거부한다. 아폴론이 카산드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건넨 선물이 예언하는 능력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능력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신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성급하게 주고 나서 다시 빼앗는 것도 '모양 빼지는' 일 이어져 아폴론은 아주 잔인한 복수를 계획한다. 자신의 사랑을 거절한 카산드라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아폴론이 내린 저주는 카산드라의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진실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카산드라가 말하는 진실이 '진실'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최고 권력자 아폴론을 거절한 대가로 약자의 위치에 있던 인간 카산드라가 겪어야 할 가장 두렵고 불행한 고통이었다.

그럼에도 카산드라는 예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 동성 파리스가 불행운을 가져 올 것이며, 그리스와 전쟁을 하다가 트로이는 몰락할 것이고, 절대로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없었다. 왕이자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간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야단과 질책뿐이었다. 제발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카산드라는 '예'라고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보지만 다시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언'을 요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굳게 마음먹는다. 카산드라의 진실을 끝내 믿지 않았던 트로이는 멸망하고 카산드라 자신은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한다.

트로이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하거나 무거운 일보다는 잠시 후면 잊어 버려도 좋을 만큼 가볍고 즐거운 사실만을 듣고 싶어 한다. 오랫동안 마음을 누르거나 외면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는 우선 거부하거나 부정하려고 한다.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고통을 주는 현실에 맞닥뜨리면 먼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본능이 작동한다.

이런 태도를 '카산드라 콤플렉스'라고 한다. 진실임을 알지만 외면하거나 혹은 애써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부정하거나 '그럴 만한 숨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리화한다. 카산드라 콤플렉스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할수록 강한 힘을 발휘한다. 카산드라가 단순히 그리스 신화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더 많은 카산드라의 절규가 들려온다.

그럼에도 세상의 모든 진실은 필연적으로 드러난다. 다만 고통스럽게도 세 단계를 문을 거쳐야 한다. 진실은 예외 없이

첫 번째 단계에서 세상의 온갖 조롱을 겪는다. "아이고 별 볼 일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외려 영광 아닌가!" 등으로 웃음거리로 만든다. 그 다음은 부정의 단계다. "분명히 뭐가 얻을 것이 있어서 그랬을 거다. 이런 사람을 먼저 범으로 심판해야 해!"처럼 본질을 부정하는 단계다.

이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세 번째 단계에서야 비로소 진실은 진실이 된다. 세 번째 문이 열리면 사람들은 진실을 자명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믿는다. 이렇게 참된 진실은 비록 조롱과 은폐를 겪지만 결국은 모두의 진실이 된다는 의미다. 이 세 단계의 율리를 말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다.

찬찬히 보면 진실을 불신하게 하는 아폴론의 권력 뒤에 우리 모습이 어른거린다. 아폴론의 저주가 통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진실과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우리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카산드라의 신화는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 진실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당장 진실의 문이 한 번에 열리지는 커녕 형편없이 느리거나, 조롱과 거부 단계에서 길게 머무는 진실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제, 수많은 카산드라의 '상처 받은 진실'을 마주 보는 용기, 그 진실을 믿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칼럼

“그때그때 달라요”



김 용 구
광주지방법원 판사

상표로 등록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갑자기 10년도 지난 예전 코미디를 들먹이는 것은 필자가 법원에 견학을 온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할 때마다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이기 때문이다. 시작은 포랑포랑한 눈빛으로 번쩍 손을 들고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라고 씩씩하게 질문하는 초등학생이었다.

“야, 양형(量刑·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형벌을 정하는 것)의 복잡다기함을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우리 학생은 다른 친구가 물건을 훔쳐왔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내가 야기는 물건을 훔쳤는 지, 그 물건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인지, 물건을 돌려주었는지 아니면 어디에 팔아버렸는지,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지 뉘뉘하게 나오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충동적이었는지, 혼자 훔쳤는지 여럿이 함께 훔쳤는지, 여럿이라면 직접 훔쳤는지 망을 봤는지, 예전에도 물건을 훔친 적이 있는지…….”

용서할지 말지는 그때그때 다르겠소? 어떻게 처벌받는지도 그때그때 다르니

다.” 다행스럽게도 그 학생은 양형에 아주 많은 고려 요소가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었다.

형사법원은 ‘양형 기준’을 고려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한다. 양형 기준은 특정 범죄 유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양형 인자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형량 범위를 권고하며, 법원은 양형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돼 있고, 이를 통해 양형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양형 기준이 도입된 이래 어느덧 10년째가 되었고 총 38개 주요 범죄군의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의 양형 기준 준수율은 약 90% 정도다. 양형 기준 제도가 있는 미국의 양형 기준 준수율이 50%에 미달한다고 하니, 우리의 양형 기준 준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양형 기준은 전형적인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어서 고충 구조의 건물을 들여놓아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건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를 이탈해 더 높거나 낮은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중 법원의 양형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접하게 된다. 하루에도 전국에서 엄청난 수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중 많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다. 세상에 비슷한 사건은 많지만, 같은 사건은 없다. 양형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간혹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조금 다른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몽태스키외는 삼권 분립을 주장하면서 ‘사법부는 오로지 법을 적용하는 기계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모든 사건은 그 특수성이 있고, 피고인인 피해자이든 누구나 저마다 사연은 있게 마련이다.

법관이 적정한 양형에 관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 없이,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판결을 해서 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때그때 달라요’가 단지 철 지난 유행어나, 재판에 대한 매우 원론적인 입장 표명의 도구가 아니라, 양형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사건에서 치열한 고민을 거친 산물임을 설명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

기 고

전남대병원을 어등산으로



민 형 배
광주시 광산구청장

축 이전 부지로 적합하다는 제안을 내놓는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올해로 13년째 표류 중이다. 그동안 ‘골프장 개발’ 외 진척된 게 하나도 없다. 시민 위원회, 녹색광장 등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말 뿐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광주시가 내놓은 안이 대형 유통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지역경제 외부 유출에 다를 아니다. 광주 시민의 구매력 총량이 정해져 있는 마당에 외부 대형 자본의 진입은 현지 상공인들의 매출을 떨어뜨릴 뿐이다. 결국, 어등산 관광단지의 장기 표류로 지역 사회의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으며, 사방이 오물투성이인데다 지하수까지 마른 땅에서 현지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갈등을 줄이고 광주 안쪽으로 바깥 돈을 끌어들이며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는 무엇일까. 나는 어등산 관광단지를 전남대병원 신축 이전 부지로 확정하는 것이 광주 시민 모두에게 좋은 ‘신’의 한 수’라고 확신한다. 간략히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어등산 관광단지는 소유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광주시가 마음만 먹으면 재빠르게 전남대병원 신축 이전을 추진

할 수 있다. 전남대병원은 국립 기반 공익 시설이고 작금의 중앙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체제인 만큼 국가의 협조 및 지원을 얻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갈등 비용을 치르지 않고, 지루한 중앙 정부 로비전을 거치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경제성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을 들일 수 있다.

둘째, 어등산 관광단지가 전남대병원 이 들어서면 전남 서남부권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전남 중동부권은 화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이 담당하여 대형·전문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연관 시설들이 함께 들어서면 지역 내 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수 있으니 일석다득이다. 특히, 어등산 관광단지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 주말이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혁신도시의 구매력을 지역 내에 붙잡을 수 있는 주요 시설 중 하나로서 전남대병원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어등산 관광단지외 그 주변은 황룡강과 어등산이 있고 특히 우리밀밭이

광활하게 펼쳐진 녹색지대다. 이 때문에 국내 어느 지역보다 생태환경 친화적인 의료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다. 병원 측이 필요로 하는 땅의 두 배를 훔쳐 넘기는 넓이여서 고충 구조의 건물을 들여놓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호남선 KTX와 광주공항,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 체계가 연결되면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권역의 의료수요까지 끌어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만한 입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때문에 광산구는 전남대병원 신축 이전 부지로 어등산 관광단지가 최고로 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전남대와 광주시, 광산구 등 관계 기관이 지체 없이 만나 함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세월을 허투루 보내 버린 지역의제가 많다. 광주 시민 모두에게 좋은, 전남대병원 어등산 관광단지 이전이야말로 ‘임기 내’에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부디, 지역 사회의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전남대병원 신축 이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이전 뒤 현 전남대병원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社 說

검찰 성추행 조사 계기 공수처 신설 탄력받나

검찰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선 것을 놓고 ‘헬프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맞물려 중립성을 지키며 검찰 등 사법 기관의 내부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도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최근 폭로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고일 의원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검찰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꾸리고 어저서 검사를 사건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가 착수했다. 조사단은 철저한 의혹 규명과 외부 민간 위원회 조사단 참여를 공언하고 있지만 사건의 전모

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캐내야 하는데 자체 조사만으로는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기소를 전담할 독립 기구인 공수처 설립이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공수처의 설치 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1호 공약으로, 현재 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어렵다 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 논의의 기구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정해졌을 뿐이다.

권력층 부정부패 외에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이나 이른바 ‘스폰서 검사’ 등 검찰 자체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도 공수처 필요성은 필요하다. 여야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눈길 끄는 광양시의 각종 저출산 극복 대책

‘아동 친화 도시’로 인정받은 바 있는 광양시가 전남에서는 최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만 3~5세)를 둔 부모들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광양시는 오는 3월부터 광양 지역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매월 3만9000원~6만9000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유치원에 대해서도 학부모 부담금(매월 2만 원)을 광양시가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 아동들의 특별 활동비 및 현장 학습비(1인당 월 9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것도 광양시가 전남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보육 정책이다. 사실에서 보육 중인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 가운데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제공해 주는 무료 돌봄서비스도 전남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도 전국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신생아 양육비를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경우 500만 원, 셋째 아이는 10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2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신생아가 함께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이다.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한국 사회를 옥죄릴 것이다. 여성 1명당 평생 출산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17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낮다. 일차리가 있는 젊은 여성이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우려해 결혼과 출산 장치를 꺼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광양시의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이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 때문이다. 물론 시의 이전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들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육아 환경을 조성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無 等 鼓

최고 가야금 명창의 명인이 운영하는 어느 국악연구소에서 수강생들의 연주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가야금을 연주하는 이들은 초등생과 중고생들이었다. 국악에 문외한인 필자는 ‘학생들 연주 수준이 얼마나 되겠나’라는, 조금은 미심쩍은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연주가 시작되자 나도 모르게 절로 탄성이 나왔다. 실내를 물들이는 선율은 고아하면서도 처연했다. 옛때 보이는 외모와 달리 학생들의 표정 또한 진지하고

시절, 가야금을 하던 어느 노인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어느 분야든 일가를 이룬 이들에게는 단단히 ‘팔이 뚫히는 순간이 있나 보다. 고인은 “가야금으로 먹고 살 수 없어 한때 그만 둘 생각을 한 적도 있다”면서도 “시작한 만큼 진수를 봐보고 그만 두자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맛을 알고 나서는 그만둘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선생은 첫 작곡가 ‘술’을 비롯해 활로와 달리 학생들의 표정 또한 진지하고 ‘침’ ‘향무’ 등 전통의 속살에 현대의 문화를 덧입히는 작업을 시도했다.

황병기

뒤에도 한동안 가야금 선율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그날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창작 가야금 음악의 창시자이자 국악을 현대화한 거장으로 평가받는 선생의 타계는 그날 들었던 가야금 소리와 맞물려 묘한 여운을 주었다. 돌아보건대 황병기 선생은 ‘엄친야’의 표상이었다. 3대 독자로 태어나 경기·충·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고인은 지난 2013년 광주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야금 인생을 걷게 된 내력 등을 이야기했다. 6·25전쟁을 피해 부산의 천막학교에서 공부하던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금선(琴線)을 울릴 때가 많다.” 꽃잎에 맺힌 이슬, 심지어 그 이슬의 그림자조차도 우리의 가슴을 몽글하게 하는 가치가 있다. 음악은 사라지는 것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생은 언젠가 수필집에서 음악을 그렇게 표현했다. 고인의 열정은 후진들에 의해 새로운 음악으로 피어났겠지만, 멋진 인생길을 걸었던 ‘현(絃)의 고수’를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으니…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